



국내은행의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 보완방안

徐 丙 昊 (研究委員, 3705-6321)

최근 파생상품 관련손실 등으로 국내은행의 시장위험, 유동성위험, 거래상대방위험이 급증하고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기존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는데,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유동성 관리체계를 향후 예상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은행의 자산부채종합관리(ALM, asset liability management)는 위험조정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 자산과 부채를 유기적·체계적으로 연관시켜 관리하는 것으로서 시장위험, 유동성위험, 순이자마진 등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과제임.
 - 자산부채종합관리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항목을 총괄하여 관리함으로써 위험 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와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.
 - 리스크 중에서 시장위험과 유동성위험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다루어야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주된 대상이며, 신용위험은 자산에만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관심대상은 아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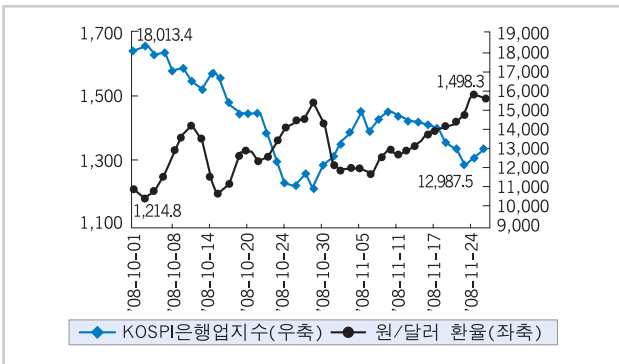
- 국내은행은 파생상품 거래와 예금유치 등을 통해 시장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대응하였으며,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 및 외화유동성 비율은 감독당국의 지도비율을 상회함.
 - 국내은행이 금리, 주가,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헤지를 위해 스왑, 선물환,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꾸준히 늘림에 따라 일반은행의 총자산대비 파생상품 거래잔액 비중은 2007년말 1.36배에서 2008년 6월말 1.53배로 높아짐.
 - 2008년 국내은행이 원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MMDA와 특판예금 등을 유치하면서 3/4분기 저축성예금은 전년동기 대비 63.6조원(12.5%) 증가하고, 6월말 원화유동성 비율은 106.7%로서 지도비율(100%)을 상회함.
 - 국내은행이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외화예금 유치와 외화차입 등을 추진하면서 2008년 3/4분기 외화예금은 전년동기 대비 6.5조원(29.8%) 증가하고, 6월말 외화유동성 비율은 101.7%로서 지도비율(85%)을 현저히 상회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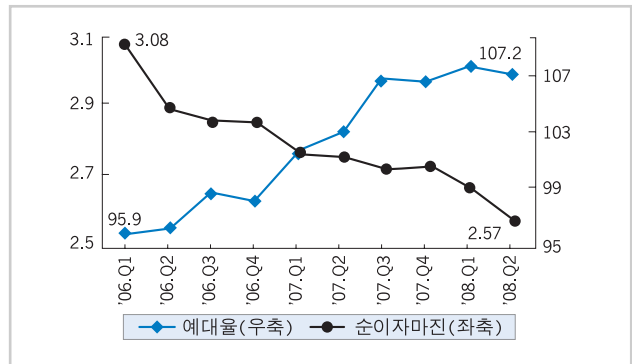
■ 그러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파생상품이 국내은행의 시장위험, 유동성위험, 거래상대방 위험 등을 악화시키면서 기존 자산부채종합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으며,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특판예금 유치는 순이자마진 하락을 초래함.

- 시장위험 헤지를 위해 가입했던 파생상품들은 대차대조표상 국내은행의 유동성비율을 개선시키고 금리변동위험 등을 조절하는 데 기여했으나, 환율변동에 따른 마진콜 쇄도 등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압박함.
-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등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종류의 거래상대방위험이 급증함.
- 특판예금 유치는 예대율과 원화유동성비율 등 국내은행의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했으나, 높은 조달금리는 순이자마진이 11분기 연속 하락하는 데 일조함.

<그림 1> 원/달러 환율 및 은행주 추이¹⁾



<그림 2> 일반은행의 예대율²⁾ 및 순이자마진



주 : 1) 종가기준

2) 예대율=(원화대출금+외화대출금)/(원화예수금+외화예수금+CD)×100

자료 :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증권선물거래소

■ 기존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유동성 관리체계를 향후 변화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해당은행의 리스크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출포트폴리오와 자금조달 방식은 물론 파생상품 취급종류 및 한도 등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권한을 가져야 부외자산까지 고려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.
- 감독당국은 부외자산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공시지표 및 감독체계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예대율, GDP 대비 대출규모, 이자보상비율, 자본수지 등의 거시지표들을 활용하여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기존 유동성위험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외자산 공시,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평가, 거래상대방위험의 측정방식 개발, 담보자산에 대한 정기적 심사 등이 주창되는 등 유동성관련 국제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. **KIF**